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30,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과 읽는 법 요한계시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마지막 30회,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21절 24절과 26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 전반에 걸쳐 구속함을 받아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5장과 심지어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방언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열방과 왕들, 특히 땅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열방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짐승과 결합한 자들은 짐승의 편에 섰던 자들로 보이며 그들의 통치를 받아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니라. 즉,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19장과 20장에서 그들은 이미 멸망당하고 심판받았음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새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성격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의 완전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최종 구원과 최종 심판의 두 이미지를 병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치 19장과 20장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것처럼 범주를 정량화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모든 나라의 마지막 사람이 모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한은 다소 절대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9장과 20장에서 땅의 모든 왕들과 열방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땅의 왕들과 열방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미지처럼 우리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열방의 온전한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포함될 열방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요한의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여주어야 하고 그가 이미 암시한 것의 일부는 이 세상 왕국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짐승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는 열방의 모든 마지막 사람이나 짐승 등을 따른 모든 사람이 이제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것은 열방의 60% 또는 그들 중 절반이 심판에 이르고 절반은 구원에 들어간다고 수량화하여 말하려는 요한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즉 사탄과 그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한다는 것은 짐승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왕국이 옮겨진다는 것은 짐승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심판과 절대구원의 장면은 단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적 포괄성뿐 아니라, 그가 가져오는 구원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회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존의 언어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는 그것을 정량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심판과 구원의 엄연한 성격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새 창조에서 그의 왕국의 완전한 도래와 그 왕국의 포괄적인 성격은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일종의 권고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이냐 심판이냐에 따라 열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대조가 주로 수학적이지 수사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수사학적으로 대조하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마지막 때 심판의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절대적 성격은 사탄과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대체하고 뒤엎고 이제 그 왕국을 자신에게로 옮기고, 사탄의 통치의 주체를 사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의 규칙은 여기에 암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열국의 포함을 의미하는 마지막 구원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21장과 22장의 마지막 때의 맥락과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2장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나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개종하여 이사야 60장의 성취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라들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국가들은 개종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사야 2장과 이사야 60장과 일치하여 마지막 때에 열방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2장과 60장의 성취에서 요한은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집합하고 포함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27절은 새 예루살렘이 포용적인 도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거기로 들어와도,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 도시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실제로 활동과 의미 있는 일과 활동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본문의 예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27절은 동시에 더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부끄러운 일과 속이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도시는 포용도시이고, 계시록의 새예루살렘은 포용도시이다.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결한 것이 없고, 불결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7절은 그가 모든 나라의 마지막 사람이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전인 성전 도시로 끝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서 이제 열방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침해하지 않고 열국이 포함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 22장과 1-5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요한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큰 하늘 가운데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성의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저주함이 없고 어린양이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리라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마지막 환상이 끝납니다. 6절은 우리를 이 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로 다시 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요한은 마지막 상속, 즉 마지막 상속에 대한 그의 환상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마무리하는 절정의 사건이다. 이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몇 가지 특징만 언급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이 보는 것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새예루살렘성전과 별개로 이해되어야 할 추가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새 창조 성전에 대한 다른 방식 또는 추가 설명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관심을 낙원 또는 천국으로 다시 암시하거나 명확하게 이끄는 부분입니다. 에덴동산.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정원과 성전 이미지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섹션의 모든 구절은 에덴동산이나 성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에덴동산을 종말론적 구원에 포함시키는 묵시적인 본문이 많이 있지만 요한이 끌어들이는 주요 본문입니다.

John은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로 에스겔 47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처음 46절은 요한이 그려왔던 마지막 때의 회복된 성전인 성전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제 그는 또한 47장을 그립니다.

그래서 47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데려왔고, 그 천사는 아마도 그를 환영 여행에 데려갔을 것이고,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또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보니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방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방향이었으며, 그 입구는 그룹들이 지키고, 동쪽 입구는, 정원과 성전 사이의 연결을 그립니다. 성전 남쪽 제단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 바깥으로 돌아가서 동쪽을 바라보니 물이 남쪽에서 흘러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동쪽으로 가면서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나에게 발목 깊이의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는 천 규빗을 더 측량한 다음 나를 무릎 깊이의 물 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또 천 개를 측량하고 내 허리까지 차는 물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 개를 측량하니 물이 솟아오르고 헤엄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물으셨다.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보느냐? 그런 다음 그는 나를 강둑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강 양쪽에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곳의 물은 신선해진다.

생물이 떼를 지어 산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떼를 지어 산다. 이 물이
거기로 흐르고 바닷물을 신선하게 만들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생명수의 강에 대한 언급인 요한계시록 22장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생명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21장에서 다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리는 약속의 일부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제 John은 여기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흘러나오는 물은 에스겔 47장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이제 요한은 생명수를
부른다. 그러나 이는 에스겔의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흐르는 물은 어디든지 생명을 준다는 점을 에스겔이
분명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John의 설명은 그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에스겔의
환상에 있습니다.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환상에서
별도의 성전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들의 존재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
너무나 스며들어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 이미지를 도시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하는 일은 물리적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느니라. 왜? 21장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겔 성전의 성취로서 그들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은 또한 스가랴서 14장 8절을 그의 배경의 일부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스겔의 환상과 다른 점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 47장에서 요한이 분명히 복수형인 나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에스겔은 강 양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제 John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는 큰 거리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상징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매우 넓지 않은 한 길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것이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광장이나 도시의 넓은 열린 공간, 강이 그곳을 통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미지를 너무 세게 밀어붙여 문자 그대로의 지리적, 건축학적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은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고 요한은 에스겔처럼 강 양쪽에 분명히 단수인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가 많은 나무를 상징하는 집단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나무를 많은 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은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고 흔한 나무 중 하나가 사시나무라는 다소 이상한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시나무에 대해 주목되는 점은 뿌리 체계가 실제로 지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숲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시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뿌리가 지하에서 다른 나무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실제로 한쪽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가 다른 쪽에서도 자라게 하고 물 속에서도 자라게 하여 양쪽에 나무가 있다는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하나의 나무가 있다는 생각은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John의 이미지와 여기의 이 이미지를 취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적은 이러한 환상의 의미를 밝히고 독자를 구약성서로 다시 데려갈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 47장으로 시작하는 요한의 예가 이제 그를 에스겔이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 본문, 즉 에덴동산 이야기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명나무의 배경은 창세기 2장 9절, 즉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대한 요한의 고의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이것이 회복된 동산임을 더욱 입증하는 그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진 에덴동산이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자체에는 에덴동산의 이미지가 있고, 흘러나오는 강물도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인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강과 나무는 분명히 에덴동산을 연상시키고,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에덴동산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에스겔 47장부터 시작하여 원래의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포함합니다. 이제 그가 나무로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12개월 동안 열매를 맺으며 에스겔 47장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지만 존은 매우 흥미로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은 21장 24절과 26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열방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치유는 5장과 7장에서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린양이 그의 피로 구속한 자들을 이제 그 앞서가들이 생명을 주어 만국을 치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한다. 그러나 치유의 일부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짐승의 통치로 인해 황폐화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짐승의 미혹을 받지 않고, 짐승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의해 해를 입고 황폐화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종말론적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나뭇잎이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이 22:1, 2, 5절은 새 창조의 새로운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과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동산과 성전의 언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매우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이미 그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 40-47장은 이미 47장에서 성전을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곳,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전 이미지를 에덴동산 이미지와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John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성전으로 묘사한 것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약의 성전은 그 모든 일 중에서 일종의 에덴동산의 축소판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과 성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저자가 구약성서에서 성막에 종려나무와 풀과 꽃 등이 새겨져 있다고 묘사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방주가 내려다보이는 두 그룹과 지성소가 있는데, 아마도 에덴동산의 입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는 두 천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꽃과 풀과 나무는 우리에게 에덴동산과 첫 창조의 나무와 열매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28장에서 아담은 대제사장의 흥패에서 나온 12개의 돌인 흥패를 입고 동산의 제사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에덴동산은 본래 성전, 즉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제사장으로 활동한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와 일치하여 요한은 이제 에덴동산 이미지의 관점에서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요한이 단 한 순간에 바로 성전 제사장의 언어로 되돌아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3절에서 열방의 치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 저주의 언어는 얼핏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3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원래 저주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것은 스가랴에 대한 암시이며 스가랴는 14장으로 끝나고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환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 그 땅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리니 안타깝게도 거기 곧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파괴의 언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언어이다. 사실, 칠십인역의 스가랴 14장 11절에서 멸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요한이 22장 3절에서 사용한 단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 뒤에 있는 개념은 학자들이 종종 그들의 죄성 때문에 한 나라에 선언된 멸망에 대한 금지, 즉 악한 나라들이 완전한 멸망을 겪게 된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도시나 나라가 더 이상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민족들을 치료하는 일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지금 그 도시에 계시며, 그들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나라들의 멸망이 없을 것이며 멸망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 대신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보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144,000명이 인을 받고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장과 14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와도 대조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아마도 제사장의 언어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론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과 36절부터 38절까지 머리에 썼던 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22장에서 집중하고 싶은 마지막 문구는 제사장 외에 봉사의 언어, 그분의 얼굴과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절에서는 어린양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므로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선,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과 10절과 같은 본문의 성취로 보아야 하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에게 부른 찬송 중 하나에서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셨으니, 혀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22장과 6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통치합니다.

우리는 또한 2장과 3장과 같은 본문에서 특히 이기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마지막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교회가 이기면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와 교회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영원무궁토록 통치함에 따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 1장 5절과 6절에서 언급된 출애굽기 19장 6절의 최종 성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왕으로서 기능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5장에서도 5장 10절을 보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사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들이 영원히 다스리느니라 했습니다.

즉, 4절과 5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9, 6장의 성취를 봅니다. 즉 그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다시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4, 5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과 그의 존재를 봅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의 머리띠나 터번을 착용하지만, 실제 성전에서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직자의 부분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왕국이 될 것이라는 다른 부분이 성취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를 볼 수 없지만 요한은 출애굽기 19장 6장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제사장 나라라 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22장과 1장부터 5장까지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기능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창세기 1장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는 묵시적인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 사람들의 제사장 활동을 의미합니다. 에덴동산은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제사장 활동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28장의 묵시적인 본문에서 아담이 에덴동산의 제사장으로 묘사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장의 활동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제사장으로 기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장, 26~28절에 비추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이 기억하는 본문이지만 실제로는 26절부터 시작하여 2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네, 28도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2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새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공중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모든 생명을.

그러므로 그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의도하신 것, 즉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것의 최종 성취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에게 주어진 창조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창세기 1장 26장부터 28장까지의 성취로 새 창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인 동산에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피조물에 충만하여 본래의 새 예루살렘과 성전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졌느니라.

또한 구약 본문의 성취인 모든 새로운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발견하고, 새 예루살렘을 접하고, 새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발견합니다. 새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본 새 성전과 구원. 그렇다면 이 비전을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비전의 전반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것은 분명히 음녀 바벨론과 대조를 의미한다.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바벨론 곧 음녀 바벨론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치관, 로마의 우상숭배적인 무신론적 관행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물리적 분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의 백성이 남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2장과 3장에서 그들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자신을 제거한다면. 그러므로 로마의 이념과 그들의 불경건한 우상 숭배 행위와 황제를 섬기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짐승을 섬기는 것에서 더욱 분리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음녀 바벨론 곧 로마를 떠나려면 그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하리라 가서 그 일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21장과 22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떠나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데, 지금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새로운 창조물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누가 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증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2장과 3장의 교회가 현재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보상입니다. 2장과 3장의 메시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21장과 22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제사장 나라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현재의 새 창조의 삶을 모델로 삼고 증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을 미래의 희망, 즉 미래의 보상과 동기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22장 1절부터 5장까지는 그의 백성이 왕과 제사장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새 피조물의 생명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내 생각에는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련의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천사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2:6 이후부터는 목소리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독자들이 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일련의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교회 측의 거룩함과 순종, 신실한 증언에 대한 추가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5에서 환상이 적절하게 끝났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독자가 요한계시록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22장 6절부터 끝까지 비유적으로 볼 수 있거나 책의 성격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북엔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의 다른 쪽 끝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비전을 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대본이 아니라 교회의 대본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본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의 마지막 부분은 확실히 그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의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19장과 유사한 장면에서 요한이 몸을 굽혀 천사를 경배하려는 유혹을 받는 바벨론 창녀의

이미지 환상 끝 부분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 번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8절과 9절입니다. 사실 요한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인일 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흥미롭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유일신론적 비전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올바른 반응을 상기시켜줍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천사와 환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이것은 이 비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요한이 그의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의 교회들을 어떻게 부르고 응답하는지 생각합니다. 11절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11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봉하는 것은 그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며, 이 표현은 다니엘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John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독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때가 가까웠고 성취가 이미 가까웠으며 요한계시록이 그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인봉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자들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11절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의인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하여 행하라 거룩하고 거룩함에 대한 반응을 뒷받침하십시오. 즉, 계시록의 비전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11절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John은 무엇을 위해 전화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교회를 신실한 증인으로 묘사하거나 교회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고 묘사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가 잘못을 행하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마치 존이 이제 자신을 운명에 맡기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결국 심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책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신실함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반응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완악한 반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비유는 한편으로는 반항하는 사람들과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박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한이 여러 번 사용한 표현인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듣기가 둔한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을 강박하게 하여 그들은 계속 불순종할 것입니다. 다른 몇 가지 본문은 우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류하는 데 있어서 17절도 어렵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실 것이니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일반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전도적 부르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즉, 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물이라는 선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처음 두 가지, 즉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기를 바라는 요청이나 기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이 책에 대한 반응은 순종과 거룩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책은 8절과 9절에서 예배를 낳았고 이제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낳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건너뛰고 17절에 보면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니라. 즉, 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보라 내가 지금 오리니 신부와 듣는 자 곧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책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온다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르심이나 기도 또는 요청으로 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올 것이요, 원하는 사람은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아마도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부르심, 즉 전도적 부르심이라기보다는 21장과 6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값 없이 샘물부터 마시게 하리라 생명의 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그러므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와서 최종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마지막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본문은 또한 독자들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반응인 권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18절과 19절은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18절과 19절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경고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에 나오는 재앙은 나팔, 대접, 인봉,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때의 심판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은 가감하는 자는 재앙을 받는 자요, 가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유업과 상급에 있어서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보통 이 두 구절은 보통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방법. 첫째,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후기 서기관과 후기 독자, 해석자들에게 단어를 추가하거나 단어를 삭제하거나 문단이나 섹션을 더 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부분을 삭제하여 계시록을 변경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불신자, 특히 성경에 책을 추가하는 이단과 기타 종교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보고, 그것이 정경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글과 책, 자신의 말을 성경에 추가하거나 성경에서 책을 빼내거나 특정 책을 제거하려는 등의 다른 종파와 종교 및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종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성서적 진술로 간주되며, 성경을 훼손하지도, 삭제하지도, 아무것도 추가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며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것에 대해 논쟁하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이 구절들이 이 문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7절부터 모든 것이 권면의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독자들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구체화하면서 천사로부터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현재를 위한 예언입니다. 봉인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계속 거룩하십니다.

14절 이하에서는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입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함과 거룩함과 순종으로 동기를 부여하라는 권고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선, 이 구절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주 보았던 것처럼 구약성경에 대한 암시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구약의 율법과 관련하여 신명기에서도 이와 동일한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4장은 국가에게 율법을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4장 2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네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서 주 하나님이 주신 땅과 너희 열조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걸 재미 있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가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들의 기업이요, 땅이다.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32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12절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경배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라.”.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 신에게 제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라.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또한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이 신명기에 나오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문맥 모두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진술은 율법을 지키며 모든 일을 행한다는 맥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한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도 뺄셈과 더함의 개념은 단지 더 많은 단어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교회입니다.

1장 3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즉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나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일 것입니다. 즉, 교회나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 책을 조작하려는 후대의 서기관들에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과 그들이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단이나 거짓 종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본문을 1장 3절과 함께 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절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더하고 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 세계와 타협함으로써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책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때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예배, 순종, 의, 거룩, 곧 임박한 소망에 비추어 반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실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것, 우상을 대체하고 첨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종파와 종교에 말을 추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문장이나 문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요청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 그런 다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번 발견되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7절부터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 “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모두 그럴 것입니다.

그 곧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글썄요, 일부는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나는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그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는 속도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부 사람들은 John이 틀렸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단순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늘 기대해 왔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자신의 구원과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처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곧은 온 힘을 다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곧 재림을 기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기 이 말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의 윤리적 호소, 곧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신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긴급성을 더해줍니다. 이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계시록을 깨뜨렸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루가 끝날 때 적절한 반응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소리쳐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의 문화와 국가를 특징짓는 우상 숭배적이고, 불경건하고, 억압적인 악한 관행과 제도와 가치에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며, 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 몇 분 동안 간략하게 질문을 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계시록에 관한 이번 일련의 강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그것을 현대에 비추어 읽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비전과 언어를 현대, 지금 21세기, 현대의 사건과 사람과 국가, 사람과 기술 사이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특징지었던 것처럼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들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에는 요한계시록을 펴고 다른 한 손에는 조간 신문을 읽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즉각적인 연결을 이끌어내고 John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고 우리가 끝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노골적인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섯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곳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현재 문화와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의도는 아닙니다.

계시록은 특히 새 예루살렘의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사회와 현재를 위한 희망을 주는 비전이 아닙니다. 아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딘가로 옮기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개입하실 것이며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우리는 계시록에 목표가 있고, 우리 세상이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바로 그 분이라는 텔리적 의미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 과정의 시작에 서 계시고, 마지막에 서서 그 목표를 이루실 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다음 네 가지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인 요한계시록은 예배와 충성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계시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와 충성에 대한 부르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4장과 5장은 요한의 환상의 시작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4장과 5장의 이미지로 책을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사람, 다른 물질적 소유물, 다른 문화, 다른 국가, 다른 정부를 숭배하는 것,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다른 것에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치라는 요청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연합하여 처음이시며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의 주권을 예배하고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나중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예배와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다른 것에 예배와 충성을 바치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증거와 선교에 대한 부르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책 전반에 걸쳐 교회가 몇 번이나 묘사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과 신실한 증인을 지키는 사람들로 묘사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즉,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증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목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미 당신의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안 세계, 정의와 정의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현실을 목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과 사랑과 의로움,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완전한 활동과 의미

있는 삶이 새 창조 안에서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창조하신 제사장 나라로 대표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새 창조의 실재는 이미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생명을 증거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사명과 증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분별력과 저항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죄의 기만적인 본성 때문에, 사탄의 기만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그의 시도 때문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 우상 숭배가 있는 곳, 경건하지 않은 곳이 있는 곳, 폭력과 해악이 있는 곳을 분별하려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문화, 국가, 국가, 정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보려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며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언과 새 창조의 실재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것에 저항하고 맞서야 합니다.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경건하지 않음을 폭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억압적인 국가와 제국을 폭로하고 폭로하지만 대안적인 관점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서는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신실한 증언을 통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동료 중 한 사람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낙원을 건설하려는 인류의 시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시대와 시대에서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맞서 저항하려면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근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어떤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순종과 제자도에 대한 요구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지막 구절인 22장 6절부터 책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신실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은 그 결과가 어떠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적어도 다섯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을 귀를 가지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마지막 30회,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입니다.